

5·18 증인 ‘회화나무 후계목’ 흠뻑 컸네

노거수 2012년 태풍 불라벤에 고사
2014년 시민 기증 DNA 검증후 식재
광주 시민-회화나무 인연 이어져

1980년 5월 아픔을 함께 겪었던 옛 전남도청 앞 회화나무의 후계목이 시민들의 사랑 속에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후계목은 심어진 지 4년여를 지나며 어느덧 3m 높이까지 훌쩍 자라 5·18민주광장을 담당하게 지키고 있다.

17일 광주시와 동구청에 따르면 회화나무 후계목은 지난 2014년 10월 27일 심어졌다.

지난 2012년 8월 태풍 ‘블라벤’이 몰고 온 강풍으로 회화나무(수령 200년 추정)가 뿌리째 뽑혀 이듬해 5월 고사한 지 5개월 만이었다.

당시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의 참상을 지켜본 회화나무가 고사했다는 소식은 많은 시민들을 안타깝게 했다. 5·18단체와 시민단체들은 나무의 넋을 기리기 위해 나무가 있던 자리에서 살피어춤 등 해원의식을 지르기도 했다.

이후 단체들과 광주시는 후속 대책으로 후계목 식재를 논의했다.

마땅한 나무를 찾을 수 없어 난항을 겪던 중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시민 선수영씨가 해원의식을 보고 “도청 앞 회화나무의 씨앗이 틈은 후계목을 기르고 있다”고 연락을 해 온 것이다.

선씨는 지난 2009년 풀벤 차량 영업을 하며 옛 도청 주변에서 대기하던 중 우연히 회화나무 앞에 자리난 어린씨를 발견하고 집으로 가져와 키웠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즉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 유전자(DNA) 검사를 의뢰했고, 해당 나무와 회화나무는 모계(母系)라는 답변을 들었다.

5월 단체와 광주시 등은 곧바로 5·18민주광장에 회화나무 소공원을 조성해 식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재 후계목은 광주시의 지원 아래 동구청의 특별 관리를 받고 있다.

병충해 관리는 물론 비가 오지 않을 때에는 가장 먼저 물을 주고, 주기적으로 영양제도 투입하고 있다.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나무 주위에 소나무 껍질을 깔아놓는 배려도 잊지 않았다.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지난 2013년 고사한 회화나무(가운데) 바로 옆에 심어진 후계목(왼쪽)이 3m 높이로 성장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동구청 공원녹지와 관계자는 “관내의 공원 관리를 할 때도 후계목 관리에 각별히 더 신경을 더 쓰고 있다”며 “현재까지 큰 탈 없이 잘 자라고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도청 앞 회화나무 소모임”에 참여했던 김경희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은 “태풍에 쓰러지며 폐기됐을 뻔한 나무가 보존되고 후계목이 심어지며 광주시민과 회화나무와의 인연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회화나무 후계목 식재는 광주시민의 장소와 역사에 대한 애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전남대병원 신축 vs 이전 의견수렴

의료진 등 관계인 설문조사...향후 사업 계획에 반영

전남대병원이 최근 추진 중인 병원 신축·이전(광주일보 2월 1일자 7면)에 대한 여론 수렴에 나섰다.

17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병원 측은 이번 주부터 2주 동안 병원과 의과대학 의료진, 직원, 동문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설문 내용은 병원 신축·이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전에 찬성한다면 부지는 어느 지역이 적절할지 등이다.

전남대병원은 현재 본원(광주시 동구 학동)을 리모델링하고 바로 옆 의과대학 부지에 신축하거나, 새 부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982년 건립된 전남대병원은 리모델링, 보수 비용으로 수십억원이 들어가고 늘어나는 환자에 비해 병실, 주차공간 등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같은 전남대병원 신축·이전 추진 소식이 알려지자 광주 광산구, 남구, 나주시 등이 부지 제공 의사까지 보이며 유치전에 나서고 있다.

전남대병원 관계자는 “설문조사는 여론 수렴 일 뿐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아직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없다. 선부터 경쟁은 자체해달라”고 당부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학교간 공동수업 전남 농어촌도 활성화

교육부 온라인 플랫폼 ‘교실온닷’ 구축...올 11개 교육청 시범 운영

고교생에게 다양한 과목선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전남지역 등 농어촌에서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실시간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플랫폼 ‘교실온닷’(www.classon.kr)을 구축해 올해 11개 시·도 교육청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1학기에는 서울과 대구, 인천, 충남, 전남, 경남에서, 2학기부터는 부산,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지역에서 운영에 들어간다. 1학기 시범운영은 고급물리, 소설창작입문 등 심화과목을 중심으로 41과목이 편성된다.

공동교육과정은 희망학생이 적거나 교사를 구하기 어려운 소인수·심화과목을 여러 학교가 함께 개설해 운영하는 수업이다. 여건상 학교 밀집 지역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운영됐고, 거리가 멀거나 교통이 불편한 농·산·어촌의 경우 활성화가 쉽지 않았다. 이번에 도입되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화상수업 플랫폼으로 실시간 수업이 가능하다.

개별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을 수강하고 이수결과를 인정받을 수 있어 2022년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정보올림피아드 무더기 출제 오류

7문제 ‘복수 정답·정답 없음’ 처리...대입 반영에 학생·학부모 불만 폭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NIA)과 전국 교육청이 주관하는 한국정보올림피아드(KOI) 경기부문 지역 대회에서 무더기로 출제 실수가 발생해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대회에서 입상하면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소프트웨어 중점 대학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 등에 반영되므로 대학 진학하는 데 유리하다는 측면도 고려됐다.

지난 14일 치러진 제35회 KOI 지역대회에 참가한 수험생들에 따르면, 이 대회에서 출제된 문제 중

상당수에 출제 오류가 있었다. 대회 주최 측이 현재까지 출제 오류를 인정한 문항만 7문항. 모두 ‘복수 정답’이나 ‘정답없음’으로 처리됐다.

출제 실수가 있었던 문항은 초등부(총 40문항)는 37번(단답형, 복수정답), 중등부(총 50문항)는 15번(객관식, 정답없음), 44번(단답형, 복수정답)이었다.

특히 고등부(총 50문항) 경기대회는 6번(객관식, 정답없음), 27번(객관식, 복수정답), 36번(객관식, 정답없음), 49번(단답형, 정답없음) 등 4문항이나 출제 실수가 인정됐다.

/연합뉴스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57 달뜨기 07:34
해질 19:07 달지기 21:27

오늘도 미세먼지 나빠요
대체로 맑지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

◇ 지역별 날씨 (°C)

광주	맑음	7/22	보성	맑음	3/21
목포	맑음	7/19	순천	맑음	4/22
여수	맑음	8/21	영광	맑음	4/19
나주	맑음	3/22	진도	맑음	5/19
완도	맑음	7/21	전주	맑음	6/21
구례	맑음	4/23	군산	맑음	5/16
강진	맑음	4/21	남원	맑음	5/21
해남	맑음	4/21	홍산도	맑음	7/16
장성	맑음	4/22			

◇ 바다 날씨

지역	바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북서~북	0.5	남서~서	0.5
	면바다	북서~북	0.5~1.0	남서~서	0.5~1.0
남해서부	앞바다	북서~북	0.5	남서~서	0.5
	면바다(동)	북서~북	0.5~1.0	남서~서	0.5~1.0
	면바다(서)	북서~북	0.5~1.0	서~북서	0.5~1.0

◇ 물때

지역	간조		만조	
	시각	수심	시각	수심
목포	08:53		03:43	
	21:04		15:53	
여수	04:20		10:34	
	16:33		23:02	

◇ 주간 날씨

19(목)	20(금)	21(토)	22(일)	23(월)	24(화)	25(수)
☀	☀	☀	☁	☀	☀	☀
7/25	9/26	11/25	14/21	12/21	11/20	11/20

◇ 생활지수

- 보통: 뇌졸중, 감기
- 한때나쁨: 미세먼지

Imagine your Korea

함평나비! 청년이 되어 세계로 비상하다.

The 20th HAMPYEONG BUTTERFLY FESTIVAL

제20회 함평나비대축제

2018. 4. 27. 금 ~ 5. 7. 일

함평엑스포공원, 함평천생태습지, 화양근린공원

www.hampyeong.go.kr/tour/ 문의 : 061-320-1784

주최 함평군 주관 함평군축제추진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한국관광공사, ex 한국도로공사,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